삼국유사 인문학·유행(遊行)

'효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불교와 유교 윤리관 통합… 새 인간형 제시

경주 불국사. 김대성은 고용살이로 받은 밭을 점개(漸開)법사의 흥륜사 육륜(六輪)법회에 보시하였고 그 공덕으로 재상집에 태어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

유교 효와 불교 선의 갈등 해소
자비사상은 대효(大孝)사상 승화
불국사 창건 김대성 등 일화 다뤄

1. 효와 선의 두 아름다움[孝善雙美]

〈삼국유사〉 전 5권 중 「왕력」과 「기이1」은 제1권, 「기이2」는 제2권, 「흥법」은 제3권, 「탑상」과 「의해」 2편은 제4권, 그리고 「신주」, 「감통」, 「피은」, 「효선」 4편은 제5권에 편재돼 있다. 7조목에 지나지 않는 「흥법」은 〈삼국유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편목답게 독립 권차로 편재되어 있다. 반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4편은 가장 많은 편명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권에 배속돼 있다. 이 중 유교의 효행과 불교의 선행이 융합된 「효선」편은 제5권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진정사 효선쌍미', '대성 효 이세부모 신문대', '향득사지 할고공친 경덕왕대', '손순매아 흥덕왕대', '빈녀양모'의 5조목이 실린 이 편 속에는 찬자 일연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은 불교 윤리의 실천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적 인간과 유교 윤리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유교적 인간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진정사 효선쌍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상의 제자 진정이 보여준 어머니에 대한 효와 부처님에 대한 선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타적 삶의 길인 출가였다. 일연은 이것을 '효와 선의 두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붙였다.

유교의 효행과 불교의 선행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심해 왔던 일연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효와 선의 융합'에서 찾았던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세속적 의미에서의 '효'라면, 부모와 자식과의 개인적 인연을 끊고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 불교적 의미에서의 '선'이다. 여기에서 효와 선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난다. 가난한 백성들의 보시[善]와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孝] 이들 사이의 접점과 통로는 무엇일까?

일연은 「효선」을 통해 유교적 효와 불교적 선의 갈등을 '작은 나'에서 '큰 나'를 넘어 '더 큰 나'의 차원으로 나아가 해소하고 조화의 통로를 열었다. 불교적 충과 효는 일국(一國)에 대한 충과 일부모(一父母)에 대한 효를 넘어서서 만국에 대한 충[萬忠]과 모든 부모 및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을 섬기고[孝] 따르는[順] 마음을 지니는 대효(大孝) 혹은 만효(萬孝)로 확장된다. 때문에 만효(萬孝)와 만선(萬善)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無我] 출발하고 있기에 내 한 집[一家] 부모를 향한 '한 집의 효'[一孝]만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난[出家] 보다 큰 집[萬家]의 효로 확장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붓다에 대한 선행(善行)과 이타행(利他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세에서 삼세로, 일가에서 만가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주관적 지평을 껴안고 넘어서 객관적 지평의 표면적을 늘리는 무아윤회(無我輪廻)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의 범주 역시 시간적으로 현재(現在)의 일세 지향에서 과현미(過現未)의 삼세지향으로 확장된다.

이 같은 확장은 무아로 표현되는 주관적 지평을 기어서 껴안고 넘어가면서 객관적 지평의 표면적을 넓히는 자비사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던 일효(一孝)는 내가 없고[無我] 나의 것[我所]도 없음을 자각하는 인식의 전회를 거쳐 대아(大我)로 나아가는 대효(大孝)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각[知恩]과 보답[報恩]에 입각한 부모의 봉양과 그 부모의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행은 곧 모든 존재의 속성인 무상, 고, 무아에 대한 명료한 통찰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때 불교의 효는 일세 지향이 아니라 삼세 지향이 되고, 일가 지향이 아니라 만가 지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곧 붓다를 향한 선행과 이타행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해서 불교의 효학은 효행과 선행이 곧 이타행임을 역설하고 있다.

2. 효행과 선행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의 효란 살아있을 때 자식이 베푸는 풍성한 음식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출가하여 성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식의 안녕이 곧 부모의 안녕이며, 자식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진정은 장가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여 군대에서 부역하는 여가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안에는 전 재산인 다리 부러진 솥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승려가 문간에 와서 절지을 쇠붙이를 구하자 어머니는 솥을 그에게 시주하였다. 얼마 뒤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 까닭을 말하면서 아들의 뜻이 어떤지를 염려하였다. 진정이 기뻐하는 낯빛을 보이면서 말하였다. "불사에 시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다행한 것입니까? 솥이 없다 한들 또 무슨 걱정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질그릇 물동이로 솥을 삼아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일찍이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강설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효도를 다한 뒤에 꼭 의상(義湘)법사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불도를 배우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몹시도 빠르단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효도를 마친 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겠느냐? 어찌 내 생전에 불도를 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만 하겠느냐? 삼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자 그의 어머니가 즉시 일어나 마련해 둔 자루를 거꾸로 터니 쌀 일곱 되가 나왔다. 그 쌀로 밥을 짓고 말하였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면 길이 더딜까 두렵다. 마땅히 내 보는 앞에서 한 되의 밥은 먹고 나머지 여섯 되 밥은 싸서 어서 떠나거라." 진정이 눈물을 삼키고 세 번을 굳이 사양하자 어머니는 세 번을 권했다.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어기기 어려움을 알고 밤낮으로 길을 가서 3일 만에 태백산에 도착했다. 의상법사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진정(眞定)이라 하였다.

가난했던 김대성은 고용살이로 받은 얼마의 밭을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점개(漸開)법사의 흥륜사 육륜(六輪)법회에 보시하였다. 그 보시의 공덕으로 대성은 뒷날 재상의 집에 태어나 전세의 부모를 위해 토함산 중턱에 석불사를 세웠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 토함산 자락에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웅천주에 사지(舍知)의 벼슬에 있던 향득(向得)이 흉년으로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 어머니도 종기가 나서 거의 죽게 되자 향덕이 밤낮으로 옷깃을 풀지 않고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내어 평안하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자세히 전해드리자 경덕왕은 벼 500석을 하사하였다.

손순(孫順)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처와 함께 품을 팔아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의 어린 아들이 언제나 어머니가 잡숫는 것을 빼앗아 먹었다. 아내와 상의하였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모시기 어려우니 이 아이를 묻어서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 드립시다." 그는 아이를 업고 모량리 취산 북쪽 들로 가서 땅을 파다가 난데없이 돌로 된 종을 얻어 매우 신기해하였다. 부부는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잠시 나무 위에 걸고 두드려 보았더니 그 소리가 은은하여 들을 만 하였다.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업고 그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대들보에 매달고 쳤더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다. 흥덕왕이 이 소리를 듣고 조사하게 하여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메벼 50석을 주어 지극한 효를 숭상하게 하였다. 손순은 살던 옛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고 이름을 홍효사(弘孝寺)라 하였으며 석종을 모셔두었다.

3. 불교윤리와 유교윤리의 공존

가난한 여인[貧女]이 흉년이 들어 문전걸식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팔고 곡식 30석을 얻어 주인집에 맡겨놓고 일을 해왔다. 날이 저물면 자루에 쌀을 넣어 집으로 와서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리고 어머니와 잠을 잔 뒤 새벽이면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말하였다. "지난날에는 거친 음식도 마음이 편안하더니 요사이는 좋은 쌀밥을 먹어도 마음속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어찌된 일이냐?"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자 그의 모친은 통곡하였다. 여인은 자신은 다만 먹는 것만 봉양할 줄 알았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서로 껴안고 울었다. 뒤늦게 달려온 문객들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효종랑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 100곡을 보냈다. 효종랑의 부모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벼 1,000곡을 거두어 보내 주었다. 이 일이 대궐에 알려지자 진성왕도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병사들을 보내어 그 집을 지켜 약탈당하는 것을 막게 했다.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리(孝養里)라 하였고 뒤에 그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고 양존사라 하였다.

불교의 윤리와 유교의 윤리가 만나는 접점은 효와 선이다. 『삼국유사』「효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윤리적 효와 불교적 선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에 대한 효와 붓다에 대한 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세간적 효와 출세간적인 선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유교의 효와 불교의 선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불교신앙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는 통로는 '하나뿐인 재산인 솥'을 보시함으로써 '늙은 홀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출가하여 정진하고', '생활의 터전인 밭'을 보시함으로써 재상의 집에 환생한 뒤 석불사와 불국사를 창건하며, 효를 위해 자식을 묻으려다 종을 얻어 포상을 받고 옛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고, 몸을 팔아 효를 다하다가 불교에 귀의하여 그 집을 사찰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불교적 추선을 실천한 시주(施主) 추선(追善)형 이야기와 유교적 효행을 매개한 은원(恩怨) 희사(喜捨)형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이다. 왕족과 귀족층은 사후 추선과 불사 희사를 하는 반면, 평민층은 생전의 봉양, 출가의 여부, 사후의 추선, 불사의 희사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연은 종래의 여러 편목에서 왕족과 귀족층의 불사 희사와 사후 추선 등에 대해 서술해 왔기에 이 「효선」에서는 평민층의 봉양, 출가, 추선, 희사 등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효선」이 본사로서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른 편에 대해 이중의 유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전체 맥락에서 「효선」편이 가지고 있는 편차의 불가피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일연은 신라시대의 현실에서 유교의 비판에 대한 불교의 대응과 자신을 포함한 고려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편목을 편재했을 것이다. 일연은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으나 유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고려 후기의 상황은 불교의 사찰이 도교의 칠성과 무속의 산신과 불교의 독성을 삼성각 안에 아울렀듯이 불교와 유교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그가 효성이 지극했던 북송의 선사 진존숙(陳尊宿)을 사모해서 그의 아호를 '목암'(睦庵)이라고 했듯이, 그리고 국사(국존)의 자리에 있던 78세 때에 96세로 하세(下世)했다는 기별이 당자 스스럼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했던 역정을 통해서도 그의 효선 인식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효선」에 실린 효선 관련 조목들 대부분이 불교와 유교의 공존 내지는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리상호,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이범교 역해,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불교의 효학의 이론과 실제」, 『불교와 생명』(불교춘추사, 2008).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신라인들은 효와 선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신라문화선양회,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 (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추명사 를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한불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